

천연가스 국제카르텔 대비 시급!

LG경제연구원, LNG 공급국 결속 강화 ... 독자적 국제가격 우려

국제 천연가스 시장에서 생산량이나 판매가격을 담합하는 카르텔이 형성될 우려가 커지고 있어 대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LG경제연구원 이광우 선임연구원은 1월3일 <불확실성 커지는 국제 가스 시장> 보고서에서 “2008년 12월 출범한 가스수출국포럼(GECF)은 공식적으로는 가스 생산국과 소비국의 협력을 통한 가격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같은 자원 카르텔 성격을 띠는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가스수출국포럼에는 세계 최대의 가스 보유국인 러시아를 비롯해 15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세계 천연가스 매장량의 73.1%, 생산량의 41.8%를 차지하고 있어 원유 매장량의 75.5%, 생산량의 43.2%를 차지하는 OPEC과 유사한 점유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광우 연구원은 “높은 점유율에도 파이프라인 방식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현재의 교역 특성을 감안할 때 당장은 가격에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려우나, 장기적으로 LNG(액화천연가스) 교역이 활성화되면 독자적인 가격 구조를 갖는 국제 가스가격이 등장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상대적으로 운송이 자유로운 LNG 교역이 늘어나면 가스시장이 글로벌화되고 가스 카르텔의 영향력도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천연가스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 상품으로 인식되면서 파이프라인의 특성을 이용한 가스 무기화가 심화되고 LNG 교역에서도 공급국가 간 결속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에서는 천연가스 사용이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에 국내외 가스전 개발 활성화 및 수입선 다변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천연가스 비축고를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러시아산 가스 도입사업에서 공급자인 러시아와 중계자인 북한으로부터 안정적인 파이프라인 공급을 확실하게 보장받아야 하고, LNG 방식을 병행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연합 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2/03>